황선우 vs 포포비치… 수영 10대 라이벌 시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차지한 다비드 포포비치(17·왼쪽·루마니아)와 200m에서 2위로 은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19). /연합뉴스

포포비치, 세계선수권대회서 자유형 100m·200m 석권 황선우의 경계대상 1호 부상

"포포비치가 비슷한 나이여서 라이벌 구도로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이번 자유형 200m에서 포포비치가 1분43초대라는 대단한 기록을 냈다. 저도 열심히 훈련해서 1분43초대로 들어가야 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황선우)

황선우(강원도청)의 경계 대상 1호로 급부상한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49년 만의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100m와 200m 석권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포포비치는 23일 오전(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5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

전날 준결승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주니어기록(47초1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 막심 그루세(프랑스·47초64)보다 0.06초 앞서 터치패드를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위는 조슈아 리엔도 에드워즈(캐나다·47초71)였다.

물론 이 종목의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노리던 케일럽 드레슬(미국)이 예선을 통과한 뒤 기권해 포포비치와 정면 대결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포포비치의 준결승 기록은 2009년 이탈리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자르 시엘루 필류(브라질)가 작성한 이후 13년째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는 세계기록(46초91)에 0.22초 뒤진 것이어서 세계수영계를 술렁이게 했다. 2009년은 '기술 도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하기 전이다.

2004년 9월생으로 만 나이로는 17세인 포포비치는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에서 1975년 앤디 코언(미국, 당시 만 17세)에 이은 두 번째로 18세 생일 전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됐다.

포포비치가 더 대단한 것은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모두 우승했다는 것이다.

포포비치는 21일 열린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3초21의 세계주니어신기록으로 자신의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은메달을 딴 황선우보다 1초26이나 빨랐다.

포포비치는 준결승에서도 황선우가 가지고 있던 세계주니어기록(1분44초62)을 1분44초40으로 새로 썼다.

FINA에 따르면 단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와 200m 우승을 독차지한 선수는 1973년 제1회 대회의 짐 몽고메리(미국) 이후 포포비치가 49년 만에 처음이다.

포포비치는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2관왕에 오른 최초의 루마니아 선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연합뉴스

광주FC 홈 11연승 노린다

26일 경남FC와 K리그2 23라운드 대결

'안방 극강' 광주FC가 홈 11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26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경남FC와 하나원큐 K리그2 2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16경기 연속 무패와 함께 홈 11연승을 노리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22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3경기 연속 터진 김종우의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무더운 날씨와 빡빡한 일정 그리고 홈 팀의 적극적인 압박까지 더해 어렵게 전개된 경기에서 광주는 투혼과 끈끈한 조직력을 보이면서 승점 1점을 적립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무패 행진은 15경기(11승 4무)로 늘어났고, 2위 대전과의 승점은 9점 차를 유지했다.

광주는 이번 홈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무승부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앞서 홈에서 진행된 최근 10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홈에서 극강 모드였던 광주는 물오른 '풍암동 지단' 김종우를 앞세워 승리 사냥에 나선다.

김종우는 20라운드 안양전에서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데 이어 전남과 대전을 상대로 귀한 동점골을 장식하면서 광주의 승점 적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득점 외에도 날카로운 패스와 움직임 그리고 연계 플레이로 공격에 활로를 불어넣고 있다.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엄지성도 광주의 공격을 다변화하고 있다.

엄지성은 지난 대전전을 통해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위협적인 슈팅을 고루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줬다.

여기에 빠듯하게 전개된 대전전에서 휴식을 취했던 마이키, 하승운, 이희균 등 핵심 공격 자원들도 출격 준비를 끝냈다.

주장 안영규가 이끄는 수비도 탄탄하다. 김재봉, 김현훈, 아론, 박한빈 등 누가 그라운드에 오르더라도 든든하다. 광주는 올 시즌 20경기에서 16실점만 하면서 리그 최소 실점 공동 1위다.

아론도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지난 라운드 대전전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로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박준강도 활발한 움직임과 안정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수비진 구성의 폭도 넓어졌다.

경남의 막강한 창을 막는 게 이번 라운드 숙제다.

광주FC가 세 경기 연속골을 장식한 김종우를 앞세워 26일 경남FC전에서 홈 11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 21라운드 전남전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김종우. 〈광주FC 제공〉

경남은 35골을 몰아넣으면서 광주와 함께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티아고와 에르난데스 총 18골을 합작했고, 윌리안의 움직임도 매서워지는 등 최강의 외국인 공격진을 갖추고 있다.

반면 수비가 불안하다.

경남은 리그 최다 실점 2위(33실점)를 기록하고 있고, 광주보다 하루 덜 쉬고 원정 경기를 치르는 만큼 체력 부담도 크다.

광주가 김종우를 앞세워 경남의 허술한 방패를 뚫고 홈 11연승과 16경기 무패행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 멀티 히트 … 20경기 연속 출루

양키스전 3타수 2안타

최지만(31·탬파베이 레이스)이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기록하며 20경기 연속 출루를 달성했다.

최지만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293(157타수 46안타)으로 상승했다.

1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이한 최지만은 3루 쪽 기습 번트로 내야 안타를 기록했다.

우측 타구가 많은 좌타자 최지만에 맞서 양키스 내야가 오른쪽으로 당겨 수비하자 최지만은 대놓고 3루 쪽으로 번트를 대 수비시프트를 무력화했다.

최지만은 이 안타로 20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달성했다.

최지만은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무사 1루 상황에서 몸쪽 공을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최지만의 시즌 12번째 멀티 히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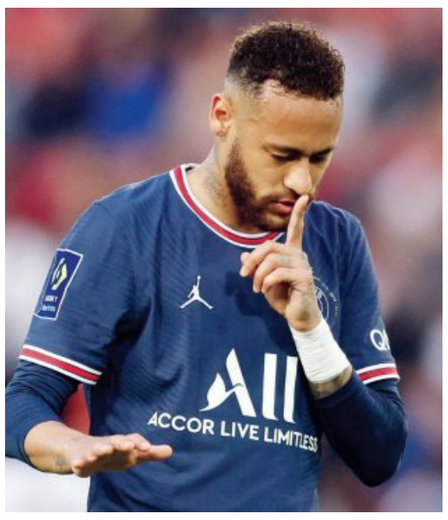
4회엔 2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섰지만 3루 주자 테일러 월스가 포수 견제로 허무하게 아웃되면서 타점 기회를 놓쳤다.

최지만은 5회 다시 선두 타자로 나섰지만 잘 맞은 타구가 유격수 정면으로 날아가 아쉽게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7회 2사 3루에서 맞은 4번째 타석에선 고의사구로 이날 경기 3번째 출루를 달성했다.

최지만은 이날 3번의 출루에도 불구하고 모두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다.

/연합뉴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PSG 남을까

프랑스 언론 "2027년까지 동행"

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30)가 현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과 2027년까지 동행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3일(한국시간) "다음 달 1일 네이마르와 PSG의 계약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인 네이마르는 2017년 여름 당시 축구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인 2억2200만유로(약 3052억원)에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 5년 계약을 했던 그는 지난해 5월 팀과 재계약에 합의했다. 현재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다. 하지만 레퀴프는 "재계약을 할 때 2년의 연장 옵션이 있었다. 2021년과 2022년 7월에 각각 1년씩 옵션이 발효된다"며 계약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네이마르는 PSG에서 잦은 부상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는 못했다.

그는 정규리그 92경기에 출전해 69골(39도움)을 넣는 등 총 144경기에서 100골(60도움)을 기록했다.

2021-2022시즌에는 리그 22경기에서 13골 6도움을 비롯해 공식전 28경기에 출전해 13골 8도움을 작성했다.

이전부터 수많은 이적설에 시달렸던 네이마르는 2022-2023시즌을 앞두고도 팀을 옮길 거란 소문에 휩싸였다.

다만 네이마르의 높은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 현재 거론되는 구단으로는 유벤투스(이탈리아)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등이 있다.

/연합뉴스

LIV 골프 진출 선수들 7월 디오픈 출전할 듯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진출한 선수들이 7월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150회 디오픈(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3일 "디오픈은 1860년 창설돼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회로 개방성이 대회의 기풍이자 독특한 매력"이라며 "올해 디오픈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대회에 나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R&A의 마틴 슬럼버스 대표는 "우리는 7월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를 여는 것에 전념하고, 또(150회를 맞는) 역사적인 순간도 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개방성'과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나올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미뤄 LIV 시리즈 선수들에게도 올해 대회 문호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LIV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개막전에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 PGA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에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6일부터 나흘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US오픈에는 LIV 소속 선수들이 다수 참가했다.

7월 14일부터 나흘간 골프의 발상지로 불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올드코스에서 개최되는 제150회 디오픈도 R&A가 주관한다.

한편 이틀 전부터 PGA 투어를 떠나 LIV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브룩스 켑카(미국)의 LIV 시리즈 진출이 이날 공식 발표됐다.

/연합뉴스